

'추석 농식품 구매, 우체국 쇼핑서'

바이오진흥원, 추석 맞아 도내 영세기업 온라인 지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코로나19로 식품기업들의 판로 개척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도내 영세기업 중 우수 농식품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추석맞이 전북 영세기업 온라인 첫걸음 지원 프로젝트'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늘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약 한달 간 진행되며, 도내 13개 기업 20여개 품목으로 구성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영세기업들을 위해 추진하는 온라인 비즈니스 활성화 프로젝트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

품을 엄선해 프로젝션을 진행하는 만큼 기업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착한 소비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별 품목은 건강즙, 벌꿀, 떠떡, 고구마, 웨이크, 도라지정, 장아차, 생강차 등으로 구성됐으며, 기간 내 쿠폰 할인 프로모션으로 예산이 소진 될 때까지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북 영세기업 프로모션은 우체국 쇼핑몰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협약을 맺고 지원하며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포장 디자인 개선 및 각종 기획전 행사 시 할인 쿠폰을 지원하는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서부터 판매



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우체국 쇼핑 연계 온라인 윈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한 기업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판매 부진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은데, 전라북도 바이오진흥원이 적극적으로 영세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 매우 고맙

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이오진흥원 김동수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영세기업들에게 좋은 판로개척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전북 영세기업들의 고민거리가 조금이나마 해결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윤성 기자

'지구두바퀴 함께 합시다'

LX공사, 탄소중립 시민행동 캠페인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공사)가 탄소배출 제로 실천을 위해 상반기에 진행한 사회공헌 캠페인 '지구두바퀴 기부챌린지'를 하반기에도 이어간다.

LX공사는 기후위기 등으로 ESG 경영활동의 사회적 요구에 맞춰 탄소중립 실천과제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STOP 1.5°C 2021 탄소중립 시민행동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캠페인'과 함께 기부활동을 펼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부터 9월 22일까지 한 달간 전주 등 15개 도시에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에 '에코비트' 앱을 실행하고 자전거를 타면 참여가 가능하다.

LX공사는 이번 캠페인의 목표를 50만km 운행 및 탄소 100,000kg 절감으로 설정해 참여 국민이 목표 거리를 달성하면 일정 금액을 기부한다.

LX공사 오에리 경영지원본부장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탄소 절감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며 "지구두바퀴 기부챌린지를 통해 생태교통문화가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LX공사는 기후위기 시대로 탄소배출 제로(Zero)와 실천을 위해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독려하고 자동차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6월 11일까지 '지구두바퀴 기부챌린지'를 진행한 바 있다. /김윤성 기자



LX공사는 기후위기 등으로 ESG 경영활동의 사회적 요구에 맞춰 탄소중립 실천과제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STOP 1.5°C 2021 탄소중립 시민행동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캠페인'과 함께 기부활동을 펼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특화사업으로 경제·전통가치 확대 '일석이조'

신협중앙회, 전주한지협동조합 매출 올려 전주시, 한지마을을 활성 콘텐츠 개발 수행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가 지역특화사업을 통해 전주한지의 가치를 확대하며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신협은 저출산·고령화 등 여러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하여 7대 포용 금융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그 중 지방 소멸 해법으로 명맥만 이어지고 있는 전통문화의 가치를 개발 확대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협이 선택한 첫 번째 전통문화는 전주한지로 전주시·전주한지협동조합과 함께 처음 MOU를 체결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상품 개발부터 판로 개척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 오고 있다.

그간 전주시는 지역 고유의 전통산업인 전주한지를 되살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2016년 '1333년 바티칸이죽이 고려에 보낸 서신'과 '1904년 고종황제와 바티칸 교황간 친서'를 복원하고, 2017년엔 루브르 박물관에 바이에른 막시밀리안 2세 책상 복원에 성공했다. 그리고 유럽 문화재 보존·복원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이탈리아 국립기독교유산보존복원중앙연구소로부터 '유효성 인증서'를 획득하며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한지의 명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상품 연구개발, 판로 개척 등 한지산업의 활성화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전주시의 오랜 고민은 신협과 손을 잡으면서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MOU 이후 신협과 전주시가 가



전주 전통한지생산업단지 조감도

장 먼저 착수한 사업은 전주한지 상품 개발이다. 한지가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토파에 효과적인 한지비누, 보습효과가 탁월한 한지마스크팩, 천연 동안 보습이 가능한 상감종이 등의 생활용품과 사무용품을 개발했다. 또한, 천연 소재로 유해물질 없이 소각되는 보급형 한지수의를 통해 친환경 장례문화에 앞장서고 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마스크 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한지방역마스크 연구도 시작했다. 그 결과 99.9% 항균효과와 32.3%의 소취효과를 통해 입냄새 제거에 탁월한 뿐만 아니라 천연성분 안감으로 민감피부를 보호하는 효과까지 있는 전주한지 마스크 개발에 성공했다. 해당 상품은 식약처 품목인증(KF-94)과 미국FDA, 유럽CE 인증 획득에 성공하면서 미국 등에 수출되며 약 150만 장의 누적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신협은 신협쇼핑몰을 통해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고, 서울시 상생상회에 입점해 소비자 직접 판

날 수 있는 오프라인 판매도 시작했다. 전주한지협동조합과 조합원의 매출은 수직상승했다. 6천만 원에 불과하던 연 매출은 2021년 상반기에만 4억9,000만 원을 돌파했으며 연내 1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주한지에 대한 신협의 고민은 상품화에 그치지 않았다. 전주한지가 단순한 상품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서, 그 사회적 가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에도 전주한지와의 연결고리를 더한 내실 있는 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나아가 신협은 전주한지장 후계자 양성 사업을 통해 전주한지의 미래에도 투자하고 있다.

아울러 전주한지의 가치 보존을 위해 문화재청과의 협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재 신협은 전주시와 전주한지세계관의 가장 큰 프로젝트 전주한지마을 조성에 나섰다. 2021년 4월 30일 전주시청에서 세계적인 한지산업도시 전주한지마을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향후, 전주시는 전주한지마을 인프라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신협은 한지산업 육성사업 전주한지마을 활성 콘텐츠 개발을 수행할 계획이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한지는 한복이나 국악만큼 귀중한 우리의 전통 문화인데 빛을 받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신협은 전주한지를 시작으로 문화 있는 우리의 귀한 문화를 발굴해서 지역 경제는 살리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까지 높이겠다"고 전했다. /김윤성 기자

전북은행 장학문화재단 한양대 임창환 교수 초청강연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이 후원하는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우)은 지난 20일 전주 우석고등학교에서 '제49회 JB인문학 강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JB인문학 강좌의 이날 강연은 '브레йн 3.0'의 저자이자 뇌공학자인 임창환 한양대 교수와 함께 '뇌공학자가 그리는 뇌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뇌공학과 융합지능에 대해 테슬라, 스페이스 X, 솔라시티의 CEO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뉴럴링크' 등의 사례를 통해 쉽게 전달하며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성제환 이사는 "JB인문학 강좌에서는 올해 '4차 산업혁명 속으로'라는 테마로 다양한 강연을 준비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내 청소년들이 준비할 수 있는 진로 탐색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김영범 의심되면 '1339'로

경진원, 베트남 뷰티온라인설명회 참여업체 모집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웅, 이하 경진원)에서 운영하는 베트남 해외통상거점센터(이하 거점센터)는 현재에 도내 화장품·미용용품 브랜드를 홍보하고, 바이어와의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뷰티온라인설명회를 실시한다.

거점센터의 공식 SNS 라이브방송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베트남 바이어 50개사를 대상으로 도내 업체·

브랜드를 소개하고,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설명회 후 관심 바이어를 매칭해 1:1 온라인 상담회까지 사후지원할 계획이다.

참여업체는 거점센터에서 선별한 우수바이어(50개사)를 대상으로 자사 브랜드를 집중 홍보하고, 실시간으로 현지시장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사업이 베트남 시장공략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성 기자

샘플 제공의사가 있고 본사와 공장 소재지가 도내 위치한 중소기업이면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하다. 참여 희망업체는 27일까지 전라북도 수출지원사업 관리시스템 (<https://jbrate.jobtok.ga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바이어 발굴에 제약 받는 도내업체에게 거점센터의 비대면 온라인 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본 사업과 같이 수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성 기자

반딧불 고랭지 사과 농산물 수취값 향상

구천동농협 조합장, 서울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서 판매 마케팅

구천동농협 양승욱 조합장은 우리 무주 반딧불 고랭지 사과(홍로)의 농산물 수취 가격 향상을 위하여 지난 16일부터 4일간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의 큰 축이자 첫 번째 관문인 서울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지역 농산물 판매 마케팅을 실시했다.

우리 무주 반딧불 사과(홍로)의 경매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구천동농협 양승욱 조합장은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무주반딧불 사과의 지역적 차별성과 농가 선행 교육에 의한 출하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였다. 또한 무주 반딧불 농산물의 안정적인 물량 공급을 약속하며, 중도매인들에게 무주 반딧불 사과의 우수한 품질에 맞는 제값 받는 시장 가격 형성을 주도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설득했다.

구천동농협 양승욱 조합장은 이와 같은 마케팅 활동 이유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산 저장사과(부사)의 재고 물량이 아직 소량만 남지 않은 어려운 시장 여건에서, 21년 냉해와 폭염, 그리고 늦장마까지 각종 자연재해로 사과 생산량이 감소하여 지역 사과 농가의 소득에 큰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구천동농협(조합장 양승욱)은 이례적으로 경매 직전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판매 마케팅을 하는 선제적이고, 특단의 조치를 실시한 것이다.



양 조합장은 "올해는 냉해와 폭염 등 자연재해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시장 위축으로 우리 농가에 거대한 손실의 한계였다"며 "무주군·농협중앙회·무주반딧불조공 등 모든 기관과 협력하여 사과·포도·복숭아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확한 우리 지역 농산물이 그 가치를 인정 받고, 제값 받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농산물 공판당 대항마트, 소비 신지 등 마케팅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왔다"고 다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농업인 복지실태조사 내달부터

농진청, 농촌 400가구 대상... 삶의 질 파악 유용 자료로 활용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농어촌 지역 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2021년도 농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둔 국가승인통계(제114087호)로, 농촌진흥청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이 농촌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 사용하는 매우 중요한 통계다.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1년 차 종합조사, 2~5년 차 부문별 조사)로 이뤄지며, 올해는 보건 의료, 사회안전망과 복지서비스 부문을 조사한다.

조사기간 동안 공동 연구기관(코뮤니티스) 직원이 농촌지역(읍면) 4,000가구를 직접 방문해 만 19세 이상의 가구주 또는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면

접 조사를 한다. 코뮤니티스 직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응 지침을 숙지하고 가구를 방문한다.

조사 대상자의 답변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고, 그 결과는 농촌 삶의 질 파악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된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지원과 홍석영 과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농촌지역 조사가 많이 어려워졌다"며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정책을 세우는 데 기본 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조사를 위해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예비조사에 참여한 김제시 금구면 금천마을 김용호 이장은 "농업인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조사"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촌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전북 농관원, 도내 생산 쌀 수확 전 잔류농약 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문태섭, 이하 전북 농관원)은 전북에서 생산되는 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확 전 생산단계에서 쌀 재배 농업인 330명의 벼(쌀)를 대상으로 잔류농약 320성분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 중 벼(쌀) 재배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에서 무작위 선업 관리 시스템 (<https://jbrate.jobtok.ga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바이어 발굴에 제약 받는 도내업체에게 거점센터의 비대면 온라인 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본 사업과 같이 수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성 기자

기 등 조치를 하며, 해당 농업인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통보한다.

전북 농관원은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연중 상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산물 수확 및 급증하는 추석 명절 제수·선물용 및 김장철 채소류, 수확기 제조제(클리포사이트) 사용이 의심되는 농산물 등에 대해 특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는 등 농산물 안전관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관행적 농약 사용으로 공익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약안전 사용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성 기자